

“삐뚤어질 노을처럼 겸허한 마음으로 시 쓸 것”

고희에 첫 시집 ‘시를 읊조리는 나그네’ 펴낸 이창민 시인

“중심(從心·70을 이르는 말)에 과년한 말을 출가시키는 기분이야. 지난 3년여 동안 시를 읊조리고 새겨보았던 작품들을 모아보니 서너 말 가웃은 족하다.”

올해 일흔을 맞아 첫 시집을 낸 시인이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무안 출신 이창민 시인. ‘시를 읊조리는 나그네’(해동)를 펴낸 이 시인은 “명색이 시인이라고 문단에 등단하여 아쉬우나 작은 위로는 될 듯 싶다”며 “미흡하지만 지인들이 한번쯤 읽어주었으면 한다”고 소박한 바람을 피력했다.

그는 평소 시를 읽고 써보면서도 늘 시 앞에서 겸허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고희에 첫 시집을 발간하게 된 데서 그의 성정을 엿볼 수 있다. 분명 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는 이모저모 다시 깊고 다듬었음을 터어다.

“시인이란 별 흥미를 못 느끼는 하찮은 것 같아 줄에 자신의 심혈을 기울인다”고 말하는 그는 “그럼에도 모든 시들은 이러한 정성에 보답하기 마련”이라며 문학의 진정성을 강조한다. 그럴 만한 고향과 자연이 있었으며 그 절실함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시를 쓰기까지, 아니 시인이라는 직함을 얻기까지 그는 적잖은 시간을 애들러왔다. 마치

문병란 시인 통해 시 쓰는법 배워 문학예술 ‘가거도’ 당선 문단 데뷔

고향·자연 등 소재 300여편 써

23일 상무지구서 출판기념회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듯 그도 오랜 기간 시를 흠모하며 절차 타마의 시간을 가졌다.

그는 전남대학교청과 건설사 등에서 직장생활을 했다. 이후 한국관리공단 호남본부장을 끝으로 일선에서 물러난다. 이후 한학을 공부하며 서 접재돼 있던 문학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한학자였던 부친의 영향으로 시문을 공부했던 시간이 자양분이 되었던 것이다.

“습작을 하면서 고(故) 문병란 시인의 지도를 받았다. 선생의 시에는 심금을 울리는 독특한 정서가 있다. 부족하지만 나 또한 그분의 시가 지닌 서정성을 담고 싶었다.”

그는 문병란 시인을 통해 시를 쓰는 법, 아니 시를 대하는 법을 배웠다. 한마디로 그것은 ‘정성’이다.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다음의 말을 곧



잘 떠올리곤 한다.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맛을 모른다.”

마침내 그는 2012년 ‘문학예술’에 ‘가거도’가 당선돼, 정식으로 문단에 나온다. 이후 고향과 자연, 부부의 정 등을 소재로 300여 편 가까운 작품을 써왔다.

“노을 나이에/ 노을을 바라보니/ 노을이 되

고/ 노을을 닮아간다/ 나는 이제 노을이다/ 뼈알간 노을만 노을일까/ 햇기 붉은 노을도 있겠지/ 그래서/ 삐뚤어질 노을로 지고 싶구나”

“노을이 지고 있다”는 그의 시세계를 가늠할 수 있는 작품이다. “노을의 나이”로 환산되는 삶의 달관을 “노을을 닮은”과 같은, 담백하면서도 서정적인 표현으로 담아낸다. 이 시인은 “늙을수록 젊은 시를 써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며 “그보다 세월의 무게가 자연스럽게 투영된 시를 쓰고 싶다”고 덧붙인다.

해설을 쓴 노장수 시인은 “이창민 시인은 고향의 존재 의의와 그 생명력을 복돋우고 배려하는 전원시인으로 자리함에 오늘의 시적 성과로 볼 수 있다”고 평한다.

이 시인은 2년 전 태타리인 무안으로 낙향을 했다. 무안에 은거한다는 의미로 아호를 ‘무은(務隱)’으로 지었다.

“꿈 많은 시절 다 비우고, 이제 시를 읊으며 나그네 길을 가고자 한다. 부족하지만 절실함과 겸허한 마음으로 작품을 쓸 계획이다.”

한편 시집 발간을 기념하는 출판회가 오는 23일 오후 5시 광주시 서구 상무리조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린다. 식전행사와 시낭송, 기념공연 및 피로연 등이 열린 예정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아동센터 청소년 500여명 야구장 초대

진우건설·서구 자율방범연합대

진우건설(대표 국봉수)과 광주시 서구 자율방범연합대(대장 박건태)는 지난 15일 지역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야구경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쏘다’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진우건설과 서구 자율방범연합대는 야구경기장 방문 경력이 없던 광주지역 아동센터 학생 500여명을 초청해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기아타이거즈와 넥센 히어로즈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진우건설이 관람권과 무릎담요 등 1000만원 상당을 후원했고, 서구 자율방범연합대는 대원들이 참여해 햄버거와 음료수 등 간식을 마련, 아동센터 학생들의 인솔을 맡았다.

국봉수 진우건설 대표는 “관중들과 어울려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니 덩달아 기분이 좋았다”며 “늘 지역주민과 나누며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상무1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밀반찬 전달식’

상무1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장복순)는 최근 상무1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독거노인 17명을 초청해 ‘사랑의 밀반찬 전달식’을 가졌다.

〈상무1동 새마을부녀회 제공〉

남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로 하나 되는 날’

광주시 남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경호)는 지난 16일 푸른길공원에서 ‘자원봉사로 하나 되는 날’ 및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리본 달기 등을 진행했다.

〈광주시 남구자원봉사센터 제공〉

‘광주의 아픔’ 21편의 시에 담아낸 재일교포 원로시인

김시중 시인, 5·18기념재단 초청 광주·평택항 방문

서울퍼린 전두환 정권시절 일본에 머물며 ‘광주의 아픔 5·18’을 21편의 시(詩)로 담아낸 재일 원로시인 김시중(87)씨가 광주를 방문한다. 그가 1983년 일본에서 일본어로 펴낸 시집 ‘광주시편’은 지난 2014년 5·18기념재단이 한국어판으로 출간했다.

5·18기념재단은 재일 1세대 시인이자 5·18 민주화운동과 광주의 슬픔을 시집으로 펴낸 김시중 시인이 광주와 진도 평택항을 방문한다고 18일 밝혔다. 김 시인은 5·18재단의 초청으로 18일 한국을 방문해 19일 진도 평택항, 20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시인과 5·18재단의 인연은 지난 2014년 재단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시인이 펴낸 ‘광주시편’을 번역·출판하면서 시작했다. 시집은 시인이 일본에서 광주 소식을 들으며 쓴 시 21편을 수록하고 있다. 당시 이 시들은 일본의 여러 잡지에 발표됐지만 국내에서는 출간할 수 없었다고 한다. 광주시편의 한국어판 서문에 “이 책을 5·18 영령과 부상자 및 유가족에게 바칩니다”를 보더라도 시인이 광주와 5·18에 대해 어떤 생각을 품고서 창작에 임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시인은 광주의 비극이 쉽게 잊혀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시에서 드러냈다. ‘명복을 빌지 말라’고 그 중 하나다.

“원통한 죽음이 가려지고만 있다면/ 대지는 이제 조국이 아니다// 날이 지나도 꽃만 놓여 있다면/ 애도는 이제 그저 꽃일 뿐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김홍균 남선산업 회장, 광주과학관 후원회 5000만원 전달

김홍균(사진 오른쪽) 남선산업(주) 회장은 최근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강신영·사진 왼쪽)을 방문해 ‘국립광주과학관 후원회’에 5000만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소외계층 청소년 초청 교육지원과 신규전시물 개발 등 지역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김홍균 회장은 “광주가 민주화 성지, 예향의 도시지만 이제는 과학기술 중심도시로 발전해야 한다”며 “지역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 예린 소극장 23일 개관 기념작 ‘광대의 꿈 소풍’ 공연

윤여승(광주예대 외래교수) 극단 대표의 오는 23일 오후 6시 지역 연극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극단 예린 소극장 개관 기념식을 갖는다.

김 시인은 1929년 함경남도 원산에서 태어나 어머니의 고향인 제주도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942년 광주사범학교에 입학해 재학 중에 해방을 맞았다. 이후 1948년 4·3항쟁에 참여했다가 1949년 5월 일본으로 건너가 작품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산림조합, 주민과 함께하는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최기열)는 지난 15일 강진군 산림조합과 강진 향동마을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운동’을 펼쳤다.

산림조합은 이날 마을의 특성을 살려 살구꽃이 피는 산촌생태마을 조성을 위해 경관수와 살구나무 등 유실수를 심었다.

최기열 본부장은 “전남도의 산림정책에 맞춰 산촌마을 가꾸기 사업이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산촌마을 입주민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 ▲임의환(전남도교육청 총무과장)·조옥희씨 지난 춘재군 송영선·황문숙씨 장녀 한별양=23일(토) 오전 11시 광주 수아비스웨딩홀 2층 크리스탈홀.
- ▲이재택(전 광주시 국장)·이정희씨 장남 준형군 김재원·안문례씨 장녀 선영양=23일(토) 오후 5시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1가 갤러리아포레 보테가마지오 L.L.층 로스타노홀 02-3409-0123.
- ▲박현규(새한철강 사장)·김공순씨 장남 종철군 김용성·이원기씨 장녀 현진양=23일(토) 낮 12시 서울 노보텔엠베서더 강남 2층 삼태인홀. 당일 오전 7시 광주문예회관 후문에서 전세버스 출발.
- ▲유준옥씨 장남 김동한군 김남석(주식회사 이레코)·김귀옥씨 장녀 민주양=23일(토) 오후 1시30분 광주시 서구 피엔제이웨딩홀.
- ▲남상원·이금숙씨 장남 서우군 정신환(aT 부장)·전유하씨 장녀 미혜양=23일(토) 오후 4시20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포레(aT센터) 5층 그랜드홀. 당일 오전

종친회

-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동구분원(분원장 이승봉) 정기총회=20일(수) 오전 10시 회의실 3층, 문의017-601-2266.
- ▲진주강씨 광주·전남총회(회장 강원구) 청년회 경남 산청군 봉양사 두방재 참배=21일(목) 오전 7시 종회회장 앞 출발. 문의 010-2378-0070.
-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여수분원(분원장 이길용) 정기총회=21일(목) 오전 10시30분 여주시 선소로93 흥국체육관, 문의 010-3621-1222.
-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영암분원(분원장 이상규) 정기총회=22

향우회

- ▲재광순천향우회(회장 장호직) 정기총회=26일(화)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삼영예식장 문의 사무국장 최일호 010-6622-2178.

동문회

- ▲학교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상·동성고·동성중·동성여중) 총동문회(회장 전주연) 제20회 유은동문 한마음대축제=24일(일) 오전 10시 광주여상 운동장, 문의 총동문회 사무국 062-361-2680.

알림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

모집

-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 ▲각화문화의집 프로그램 회원=바이올린교실(매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4시 30분), 하모니카(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오후 3시), 노래교실(매주 월요일 오후 3

부음

- ▲최정애씨 별세 이양재·연재·점숙·신실·미숙·명숙·미란·세라씨 모친상 이인평·박종민·김성수·김선철·박광우씨 병모상=발인 20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201호 故김점옥 님(여/78세) 子/子婦: 정옥식/김원순, 기식/김송자, 인식/김미경 女/婿: 정옥자/변재홍, 은숙/김종민, 은화/김경복 *발 인: 4월 19일 *장 지: 화순 동복선영 *연락처: 227-4381	401호 故박규현 님(남/84세) 子/子婦: 박근영/홍희숙, 근의/김명옥 女/婿: 박희숙/사기환, 광숙/조병호, 은숙/김중호 未亡人: 이영근 *발 인: 4월 19일 *장 지: 화순 안림동산 *연락처: 227-4383
402호 故고승준 님(남/61세) 子/子婦: 고준성/김난희 女/婿: 고주영/김준규 *발 인: 4월 19일 *장 지: 금성신사 추모관 *연락처: 227-4314	101호 故서영만 님(남/81세) 子/子婦: 서경환/민영희, 경민/김석희 女/婿: 서경희/진희, 김남석 *발 인: 4월 20일 *장 지: 화순 동면선영 *연락처: 227-4000

102호 故정경일 님(남/75세)
 子/子婦: 정재훈/김이연, 재영/가명화, 女/婿: 정재인/김명준
 *발 인: 4월 19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